

아낌없이 주는 나무 🌳

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셸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귀여운 한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그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소년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열심히 주워 모아 왕관을 만들어 쓴 채
숲 속의 왕 놀이를 즐겼고, 나뭇가지를 타고 그네를 타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도 자고,
그렇게 나무와 소년은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자꾸 흘러 소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소년이 나무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무는 때때로 고독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노는 것보다 돈이 필요했던 소년에게
나무는 사과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열매를 따 가지고 멀리 떠났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소년은 옛날처럼 놀고 싶은 나무에게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베어가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어갔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이 늙어 돌아왔을 때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하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쉼 곳이야"
나무는 베어진 자신의 밑둥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 그 위에 걸터앉았습니다.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냥 행복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소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나무의 모습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처 - 더 좋은 삶을 위하여 / 서임중 (2002/03/27)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